

# 2020년 전문대 10명 중 9명 수시 선발

〈현 고2 대상〉

〈86.9%〉

## 입학전형 계획 발표

### 전체 모집인원 635명 증가

### 학생부 전형 70% 가장 많아

현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6개 전문대학이 수립한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4일 발표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20만5531명으로 현 고3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입시(20만4896명)보다 635명(0.3%) 늘어난다.

전문대학의 경우 그동안 학생 수가 줄고 전문대 구조조정으로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각 학교가 외국

인과 성인학습자 등 다양한 학생을 뽑기 위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확대하면서 모집인원이 늘어났다.

실제 정원 내 모집인원은 전체의 80.9%인 16만6190명으로 2019학년도에 비해 76명(0.1%) 줄지만, 정원 외 모집인원은 3만9341명으로 559명(1.4%) 늘어난다.

모집 시기별로 보면 17만8588명(86.9%)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수시모집 비중은 2019학년도(86.6%)보다 0.3%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 인원은 2만6943명(13.1%)이다. 다만, 각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기 전 지난해 초안 성격으로 발표한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90% 이상으로 예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정시모집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14만4355명(70.2%)을 선발하고, 서류 위주 전형으로 2만1522명(10.5%), 면접 위주 전형으로 2만658명(10.1%)을 선발한다. 수능 위주 전형으로는 1만1493명(5.6%)을 뽑는다.

전공별로는 간호·보건분야 모집인원이 4만4068명(21.4%)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4만3653명(21.2%), 호텔·관광 3만1666명(15.4%), 회계·세무·유통 분야 1만8269명(8.9%), 외식·조리 분야 1만4602명(6.8%) 등으로 나타났다.

모집 일정의 경우 예년과 같이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

영된다. 모집시기별 전형기간 내 면접, 실시 등 고사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대학 간 복수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증원합격)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지원은 금지된다. 또한 모집별로 지원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이중등록 금지). 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추후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전문대학 포털(www.procollege.kr)과 전문대교협 누리집(www.kcce.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대, 미생물 이용 암치료기술 개발

### 정부, 7년간 94억원 지원

전남대 이준행(사진)교수 연구팀이 다양한 암 치료기술을 병용, 통합해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연구과제를 제시해 1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이준행(미생물학) 교수팀은 미생물과 그 산물을 이용한 항암 면역치료기술을 기반으로, 세포치료·표적치료 등 다양한 암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를 병용해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제시해 의약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 Medical Research Center) 지원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의약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 지원사업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연구 그룹 중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육성하고, 생명현상과 질병의 기전 규명을 통해 BT, HT 분야



의원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교수팀은 정부로부터 7년 동안 94억원을 지원받

고, 전남대학교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박셀바이오에서 각 7억의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등 모두 총 연구비 11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는 "사업절차에 새롭고 참신한데다, 해당분야에 꾸준한 연구를 통해 훌륭한 성과를 발표한 세계정상급 연구팀이라 판단된다"며 "이미 기술이전을 포함한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바이오·건강 R&D 연구집단으로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교육부 대입 종합 개편안

### 실문·정책포럼 뒤 8월 마련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등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대학 입시제도 개편 세부사항을 8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정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쟁점은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밖에 학종전형 개선안 가운데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등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대학별고사와 수능-EBS 연계율 등은 교육부가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평가 전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전문가·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의 시민참여형 공론화와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1회 전라도 천년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중고생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제공>

## 호남 중고생 20명 유창한 중국어 구사

### 호남대, 전라도 천년 중국어 말하기 대회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이정림 원장)는 최근 전북 고창북고 국제관에서 '제1회 전라도 천년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달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중고생 20명이 참가해, '중국에서 미래를 꿈꾸다!', '나의 미래는 한·중의 미래이다' 등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말하기 능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에서 군산 서흥중 이정민 학생이 대상을 수상해 전라북도 교육감상

을 수상해 중국 교육문화연수의 기회를 얻었다.

금상엔 조아영(군산영광여고), 은상은 김한솔(고창북고), 김보미(군산 영광여고), 동상은 최보경(전북외고), 정준영(광주 광덕고), 홍기람(고창북고)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호남지역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와 전북 고창분원(고창북고, 북중)이 공동 주관하고, 전북교육청과 주광주중국어영

사관, 전북 고창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이정림 원장(심사위원장)과 주광주중국어영사관 진걸 부총영사, 전북도교육청 과목장 강학사, 고창교육지원청 김국재 교육장, 호남대 중국어과 유영 교수, 장일범 영사 등이 참석했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전북 고창분원은 국제화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신HSK(중국어능력시험) 전북고창고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중국 현지 문화탐방 및 동·하계 캠프, 학생 진로지도 및 주민참여 중국어 교육 등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중국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진행된 '스킨스쿠버와 함께하는 안전 교육'에 참여한 광주 고교생들의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 대학 수업 듣는 '꿈꾸는 공작소' 823명 선발

### 범죄학·앱 개발 30개 과정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10개 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꿈꾸는 공작소'에 광주 학생 174명이 신청, 추첨을 통해 823명을 선발했다고 시교육청이 4일 밝혔다. '꿈꾸는 공작소'는 고교-대학 연계 진로과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수업을 고른 후 찾아가 4주간 16시간 수업을 들으며 진로탐색을 하는 과정이다.

참여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광주보건대, 한국폴리텍대, 호남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고교생들을 위해 총 30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은 CSI 과목 23명 모집에 225명 신청, 경쟁률 9.7:1이다. 이어 '범죄학' 타고난 범죄자 또는 키워진 범죄자를 찾아서(6.3:1), 컴퓨터 사고력-앱개발(5.5:1), 선한 영향력 있는 간호사로 준

비하기(3.3:1), 스튜어디스 꿈꾸는 그대들에게(2.8: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시교육청은 별도 추천위원을 선정해 무작위 추첨으로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명단을 확정했다.

'꿈꾸는 공작소'에 참여하게 된 고등학생들은 해당 대학을 방문해 전공 교수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창의융합형, 심화형 수업을 들으며 진학 방향을 설계하게 된다. 활동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 대비 프로그램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다.

한편, 꿈꾸는 공작소 신청 학생과 대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기에 7개 대학, 2017년 2기에 9개 대학, 6월4일 시작한 2018년 1기에 10개 대학이 참여했다. 참여 신청을 한 학생도 651명(2017년 1기)에서 1478명(2017년 2기), 1745명(2018년 1기)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의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575. /김형호 기자 khh@

## 경매 투자

-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자본금 1억이상
-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